

최태원 “한일, EU같은 경제협력 모델로”

미국서 열린 ‘2023 TPD’ 참석
한일 경제 협력체 필요성 강조해
관광업·스타트업도 시너지 효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체화했다.

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했다.

TPD는 한미일 정부와 경제계, 학계 등이 모여 글로벌 현안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최종현 학술원이 2019년 발족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일 교류 활성화를 넘어 한미일 3자 협력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과 공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최근 도쿄에서 주장했던 “한일 경제 협력체”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이 WTO 체제에서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TPD에서 한일 경제협력체를 설명하고 있다. /SK그룹

지고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최 회장은 한일 경제 협력체가 추후 EU와 같은 아시아 경제협력 모델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동맹을

맺어 성장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다며, EU도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연합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전체에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갈라 디너에서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도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전세계 LNG 30%를 수입하고 있다며,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관광업과 스타트업 플랫폼에서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일 경제협력체가 미국과 함께 협력하면 30조달러 수준 경제권으로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임원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젊은 경영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회장단 용퇴설 등 대대적인 개편 예상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최창원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새로운 수페스 추구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50대보다 적은 20세 이하 인구… 韓 진짜 망했나



김지수 집권

김연세
(정책사회부)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분포를 나이대별로 계산해 봤다. 만 0~9세에 10~19세 인구를 더한 수가 50~59세보다 적었다. 800만 명 대 866만 명. 세는나이로 한 살부터 스물 살까지가 50대에 비해 66만 명이나 모자란 상황이다.

5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9%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 6명 중 1명 넘게 50대에 속한다. 반면 10세 미만은 6.5%에 불과했다. 이 사회에 영·유아 수가 국민 15명 중 1명꼴밖에 안 되는 것이다. 10대(9.1%) 역시 열에 하나가 채 못 된다.

20세 미만 인구는 40대(15.5%)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14.9%)에

견줘도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10세 미만은 70대(7.7%)보다도 비중이 1.2%포인트(p) 작다. 사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경고는 짧게는 수년 전부터, 길게는 십수 년 전부터 솔하게 나왔다. 이제는 ‘한국 완전 망했네요’라는 소리까지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올 지경이다.

통계청은 매월 발표한다. 혼인건수 감소, 출생아수 최저, 인구의 자연감소분…언제까지 반복할지 알 수 없다.

수능철만 되면 N수생이 넘쳐난다. 올해 더 그랬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금처럼 넘칠까. 1인가구가 넘쳐나고 살 집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 한 살배기가 스무살, 서른살 돼도 부족할까. 시험 치를 사람이 급감하고 빈 아파트가 전국에 널리는 상황. 이것은 아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행안부·통계청이 매월 갱신하는

인구통계가 신호를 여실히 보내고 있다.

수출이 연달아 줄고, 직장인 실질임금이 줄고, 생산·소비·투자가 동반으로 줄고… 그러나 이런 경제지표는 일시적일 뿐, 금세 또 다시 늘어난다.

그런데 지표가 호전돼도 앞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다. AI한테 전부 맡길 수 없는 노릇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탈출구 찾으려는 절실함이 요구된다.

이제 입시철이 지나면 곧바로 선거철이다. 여든아흔 후보들이 이 같은 인구구조 해법을 담은 공약을 내걸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노인부양세금 내느라 등골 휘는 세상 만들어 주고 싶 것인가.

사실 결혼 없고 아이 안 갖는 풍조에 어떤 답을 해야할지 막막하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포기하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

/kys@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0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직원을 뽑을 때 인성을 우선시해보자. 48년생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60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72년생 지혜는 샘솟지 않아도 근면함을. 84년생 무리한 방법의 재투자는 재난초래.



3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49년생 집들이하는 날. 61년생 준비 없는 동분서주는 이익이 없다. 73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85년생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의 사정 돌아볼 여지가 없다.



38년생 돈이 밝은 곳에 있으면 지출만 커진다. 50년생 생산성을 이끌어 이득 발생. 62년생 향상심이 없이 보내는 날은 의미가 없다. 74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86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도 원망하지 마라.



39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 강가서 분불이. 51년생 소통의 방법을 알면 날개를 다는 형국. 63년생 주변을 탓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75년생 일할 터전이 있어 의욕 넘침. 87년생 좋지 못한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40년생 내가 가진 재물로 우월성은 자제해야. 52년생 주식 투자는 친구 말보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64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이다. 76년생 추진력이 좋은 장점. 88년생 뒤덮인 안개처럼 앞을 못 보겠다.



41년생 높은 A보다는 땅을 앓고 있는 집터에서. 5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65년생 조상께 효도하라. 77년생 대장국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पर्라. 89년생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친 것은 마한가지.



42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54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온다. 66년생 무리수를 두는 투자는 후회를 낳는다. 78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여 재충전하는 것도. 90년생 학문의 발전이 없다면 기술을 최고로 향상해야만.



43년생 기도를 올려보면 힘겨움도 줄어들고 닥쳐올 어려움도 덜게 된다. 5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67년생 재물이 융통되어 급한 불은 끄게 된다. 79년생 목소리를 낮추라. 91년생 이혼해도 지붕 위에 지붕을 세우는 것처럼 부질없다.



44년생 개개인 복덕의 차이와 운명이 펼쳐지는 발현의 강도가 어제오늘 다르다. 56년생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삶이 풍족. 68년생 책을 보니 지혜가 밝아진다. 80년생 일찍 귀가하도록. 92년생 까마귀는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려다 준다.



45년생 운세가 흔들리니 재투자는 신중하게. 57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69년생 구름만 끼고 비는 오지 않지만, 힘을 내야. 81년생 사촌이 땅을 사니 잡자기 배가 아프다. 93년생 묵묵히 하다 보니 여러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온다.



46년생 비가 많이 내리니 경제적 여건이 호전. 58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7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니 그만큼 환경이 중요. 82년생 넓게 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긴. 94년생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47년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는 힘들다. 59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71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83년생 별자리든 점성술이든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것은 동서고금 확고하다. 95년생 스스로 단행하면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김상회의四季

이치를 밝히다, 명리

모든 분야에서 정보는 무기다. 국가 간의 경쟁이나 기업의 성공도 정보의 획득과 활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대한 예측정보를 획득하려 무던히 애를 썼다. 세상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하늘과 바람과 천체들을 관측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물(有情物)이든 무정물이든 이러한 우주적 에너지와 상호 영향과 작용을 주고받는 것을 직관하고 통찰한 것이다. 그러한 통찰의 결과는 임금 복희씨의 하도와 주나라 문왕의 낙서를 탄생시켰고 춘추전국시대에는 명실상부한 음양오행론이 출현하게 된다. 그로부터 근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송나라 때 와서는 오늘날과 같은 사주가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그 후 명나라 때에는 유백은의 ‘적천수滴天髓’ 심요침이 저술한 ‘자평진전子平眞詮’ 등 가히 명리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저술들이 출현 된다. 이러한 저술들의 근간은 뭉니 뭉니 해도 음양오행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의 역학 거두이신 자강 이석영선생의 ‘사주첩경四柱捷經’을 비롯하여 이석영 선생의 제자이며 필자의 스승이신 단원 이병렬선생의 ‘알기 쉬운 실증철학實證哲學’과 같은 특출난 명리학 저서 역시 음양오행론이 기초가 된다.

스승님들은 인간 개인의 운명에서부터 나라의 국운까지 짚어 보는 데는 주역 매화역수 육요점 등 역시 가치가 뛰어나지만, 대중적으로는 사주명리학이 친숙하다. 당나라 때는 당시주라 하여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논리로 인간사 운명의 개락을 점치기도 했다. 송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명리학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명을 존속하고 있는 것은 원리의 과학성으로 예측도가 정확한 까닭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5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